

# 행안·과방위장 1년씩 교대...與 7·野 11개 삼임위원장 배분

### 53일만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 명칭 바꾼 사개특위 위원 12명

###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

### 합의는 했지만 삼임위 충돌 예상

국회가 여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 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삼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부·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두 삼임위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은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다.

역시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지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같은데 골은 여전=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은 원 구성 이후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삼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신구정권

간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복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삼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칠 경우 법사위는 이번에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복송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가운데)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 국힘 "용납 못해" 민주 "굴종 강요"

### 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경찰국 신설과 관련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엄중대처를 천명하고 나섰으며, 이에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사상 초유의 총경급 결집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 수뇌부가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만류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50여 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1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이기도 했다.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장에 도착해 "경찰국 설치가 타당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수뇌부를 향해 서도 "경찰의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전체 눈의를 거머쥐어 하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회의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니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장 주변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보였다. 회의장 주변엔 지지를 나타내는 화환들도 빼곡히 들어섰다

회의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표명했던 경찰청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두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 소관 삼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선 경찰서장들이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우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며 "이게 정계 사안이나.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마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복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재용' 논란 등 각종 현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역시 여야 간 대립을 가팔라지게 하

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구 정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현 정부 방어와 함께 전미 문제인 정부를 겨냥해 집중 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위전'을 치르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의원들은 주말 외부 일정을 최

소화하고 본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서용용 의원 단 한 사람에게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함께 호남 인재 차별 등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감한 도전과 응전 없이는 호남 정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이 뒤 바뀐 데다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현실이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권이 목소리를 키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다시 호남 찾은 이준석, 전국 돌며 '장외정치'...우군 확보전 포석

### 재심·가처분 신청 않은채 여론전

### 약 8천여명李大代表와 만남 신청

당원권 정치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 등 전국을 누비며 사·도지사 및 2030 당원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뒤 며칠간 잠행을 이어가다 제주, 호남(목포·신안·장흥·진도), 부울경(진주·창원·부산), 강원(춘천)에 이어 다시금 호남(전주·진도·광주)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이 대표와의 만남 신청서를 제출

한 이들은 80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대신 전국을 돌아다니는 '방랑 정치'를 통해 2030 젊은 당원을 중심으로 스킨십을 늘리면서 우호적인 여론 확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구체적 거취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징계 종료 이후 재기를 염두에 둔 물밑 준비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호남 행보도 주목을 끈다. 그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진도 버스킹 행사 영상에서도 "지난 선거 때도 와서 정말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열창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쓰기도 했다.

국민의힘 취재자인 호남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임으로써 자신이 대표시절 강조한 '서진정책'을 내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일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